

예수교연합성결회

만민중앙교회

MANMIN CENTRAL CHURCH



대성전 조감도

1982.10.10. 창립

위임 목사 **이재록**

Senior Pastor : Dr. **Jaerock Lee**

www.drlee.or.kr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교회 믿고 순종하는 교회

전 교인 기도제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 항상 기도제목

- 1) 위임목사 2)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3) 구제

■ 2023년도 기도제목

- 1)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6~8)
- 2) 천국을 침노하자 (마태복음 11:12)
- 3) 마음-성전 (로마서 13:10)
- 4) 재창조의 권능 100% (요한복음 14:11~12)

교회를 섬기는 분들

부 목 사/ 이수진(당회장 직무대행)
(남) 안성현 조대희 조혁희 조수열
주현철 정규원 김영석(3) 장성식
정현진 이풍근 임학영 박광현
이석규 정진영 조성도 노영진
(여) 이미경 최영자 이미영 이성숙
황금란

협동 목사/ 문신현

선교 목사/ 페르난도 보르본

전 도 사/ 김영순 권영남 차경숙 최영신
이영인 황미경 최성숙 서덕분
박금미 오인숙 곽윤진 윤영자
임금선 조은영 강순길 정영임
임해숙 문순미 장정미 류순주
고경아

교육 전도사/ 성기용

평신도 교역자/ 김복례 권순희

지교회 교역자/ 문태규 정철수 이형업 박홍영
김요한 강승표 박형렬 박재영
최제수 서진범 김창숙 박종대
황병덕 오한준 김혜경 차전환
강영식 이성철 윤진영 김상휘

해외선교사/ 아프리카: 정명호, 세바스찬 임팩트 펠고
폴 무사피리 날완고(협력), 자고 네마 시카텐다(협력)
일 본: 정경태, 도끼꾸니 야스히로, 고마쯔 미끼, 도끼꾸니 미야고
중 남 미: 페루·콜롬비아 장정연, 온두라스 에스테인 할달
러 시 아: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미 국: 남상송, 마크 바잘레프
영 국: 제인 음폴로고마, 데이빗 무카사
독 일: 이바울
몰 도 바: 알렉산드르 따바라누, 비탈리 따바라누
대 만: 김경희
필 리 핀: 조찬형, 성 숙, 김은자, 김주범
인 도: 김상휘
몽 골: 발저릭 푸레브, 안흐바야르 간바타르
말레이시아: 지정훈
인도네시아: 자바르 H 시라이트, 메르나 탐바
파키스탄: 월슨 존 길, 타리크 지아
중 동: 보나 시두아탈라 은심바, 알렉산드르 우라조프
에스토니아: 그리고리 콜레소프

원로 장로/ 이정호
장 로/ 빈성건 이규동 이동립 최종태 추우동 이시현 박광호 유익선 최정수
박영준 정안권 김영기 박현재 이수형 최을호 김대석 성낙훈 김홍만
송왕근 김진홍 송석길 장영규 이익석 김종태 김용석 정택수 조효용
윤성식 김기호 박홍열 박영갑 김보완 홍명일 김준호 김용덕 윤창수
이재환 권태봉 채윤식 김석환 진교성 황병현 박성준 최병술 이덕행
최현수 허은범 정태찬 고광규 임종서 서희석 신상문 김부삼 정성식
이상원 마문국 마수용 이용석 김한구 김순오 마문복 유승열 손영락
윤부열 박종웅 송영현 이성익 정영태 정용필

명예 장로/ 김세원 윤석재 강재관 김영조 이성철 마광희 장세웅 서근중 최신일
한병용 나종규 이기완 한홍렬 김재규 한광현 심상식 오성준 하문복
허명옥 배철호 김영남 서성이 문경진 박진무 이주필 박경춘

협동 장로/ 김영호 김진형 김남민

지 휘 자/ 임마누엘 성가대: 김한구 살롬 성가대: 박종웅
나 사 렛 성가대: 이영철 금빛 성가대: 이영철
환 들 성가대: 서승현 膩시오케스트라: 김한구

반 주 자/ 민연홍 김서영 이현미 손은혜 김선자(오르간) 김보석

* 표는 일어서서

개회송영	주 악
기 원	사 회 자
* 개회찬송	9장 1절	다 같 이
* 성서교독	16번	다 같 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자복기도	다 같 이
찬 송	223장	다 같 이
기 도	이성숙 목사
성경봉독	누가복음 16:22~26	사 회 자
찬 양 찬양하라/ 임마누엘성가대 닛시오케스트라	
설 교	지옥(3)	당회장님
기 도	다 같 이
환자기도	영상	당회장님
찬 송	만민 찬양 159장	다 같 이
헌 금	다 같 이
광 고	사 회 자
봉헌기도	사 회 자
새교우환영	사 회 자
* 축 도	영상	당회장님

(옆 사람과 인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일 저녁예배

주일 오후 3시

사회/ 박광현 목사

대표기도	오인숙 전도사
성경봉독	옴기 15:4~11/ 사회자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살롬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특송	서승원 집사
설교	옴기 강해(35)-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1)/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사회/ 정현진 목사

대표기도	차난영 권사
성경봉독	로마서 8:18/ 사회자
찬양	금빛성가대
설교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임학영 목사

금요 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시

사회/ 이성철 목사

대표기도	김영석 목사
성경봉독	요한계시록 18:21~19:8/ 사회자
찬양	임마누엘성가대 · 닛시오케스트라
설교	요한계시록 강해(65)/ 당회장님

2-9회 13차 다니엘 철야

시간/ 매일 오후 9시 ~ 11시 (금요일은 제외)
인도/ 이복남 원장
기간/ 2월 13일(월) ~ 3월 5일(주일)
주제/ 7가지 기도제목, 잃은 양 찾기

새벽 예배

인도/ 조대희 목사
시간/ 매일 오전 5시
(토요일은 제외)
장소/ 3층 성전

다음주 예배 위원

예배	사회	대표기도
주일 대예배	장성식 목사	최종태 장로
주일 저녁예배	조대희 목사	김영순 전도사
수요 예배	노영진 목사	이형진 피택장로
금요 철야예배	장성식 목사	정철수 목사

강단헌화
갤러리



제 목 : 지옥 (2)

본 문 : 누가복음 16:22~26

지난 시간에는 천국과 지옥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음부가 존재하는 이유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알면 어떻게 할 때 복을 받는지, 재앙이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사후의 일까지 알 수 있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 들어 얹으므로 천국을 목표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 단지 알려 주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지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이룬 비와 늦은 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고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도 하지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실 때 영의 세계를 알려 주시며 우리를 천국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대기 장소'로서의 음부

천국과 지옥은 단일한 공간이 아니라 여러 공간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중 음부는 천국이나 지옥과 구분된 별도의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음부라는 공간이 별도로 존재할까요? 그것은 바로 음부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기 장소'로서의 역할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수명이 다해 죽은 영혼들이 천국이나 지옥 가기에 앞서 대기하는 장소이지요.

인간 경작의 긴 역사 동안 무수한 영혼이 육의 생명이 다해 죽었습니다. 이 영혼들은 곧바로 천국의 자기 처소나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경작이 끝나고 최후의 심판, 곧 백보좌 대심판을 받은 후에야 천국의 처소 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지요(계 20:11~13). 최후의 심판 때까지는 사람이 죽으면 육의 몸은 이 땅에 장사 되고 영혼은 대기 장소에 대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주님의 부활 이전과 이후가 다른 대기 장소

이 땅에 살다가 수명이 다해 죽은 영혼들이 대기하는 장소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각각 다릅니다. 정확히는 주님의 부활 이전과 이후가 다르지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신구약 시대 동일하게 아랫음부에 대기합니다. 지옥의 불 못이나 유향 못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랫음부에서 고난받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영혼들은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윗음부에 대기했고 신약 시대, 곧 주님의 부활 후부터는 천국 낙원의 대기 장소에 대기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16장 22~23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 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했습니다. 나사로는 구약시대 구원받은 영혼들의 대기 장소인 윗음부에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선지자가 윗음부를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대부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의 조상, 곧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윗음부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관리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영혼이 구원받으면 윗음부, 곧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들어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곁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회개하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지요. 낙원은 천국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구원받은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간 것일까요?

천국은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처소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영혼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죽었지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이나 양심이 잣대가 되어 구원 여부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죄인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했지요.

따라서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영혼들도 천국에 들어가기 이전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언제 복음을 듣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일까요?

3. 구약시대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도를 전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삼 일 동안 윗음부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19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했지요.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이란 바로 윗몸부의 영혼들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 된 사흘 동안 윗몸부의 영혼들에게 구원의 도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윗몸부의 영혼들은 이를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모두가 함께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물론 아직 천국의 자기 처소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낙원 가장자리에 준비된 대기 장소에 들어갔지요. 주님께서 감독하시는 가운데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4. 구원받은 영혼들 3일간 윗몸부에서 영의 세계 적응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해 죽은 영혼 중 구원받은 영혼들은 낙원의 대기 장소로 들어가는데, 이때 곧장 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3일간을 윗몸부에 거하다가 낙원에 들어가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나옵니다. 이때 구원받은 영혼에게는 두 천사가 마중을 나와 윗몸부로 인도하지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게는 지옥 사자가 찾아와 아랫몸부로 끌고 갑니다. 영의 세계는 매우 광활하며 육의 세계에 살던 사람이 홀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이제 갓 몸을 빠져나온 영혼은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자신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상태가 됩니다.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으니 붕붕 날 듯하지요. 이제까지 살던 육의 세계와 느낌이 전혀 다른 영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순간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영의 세계에 적응하고 기본적인 영의 지식을 배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윗몸부에 3일간 머무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천국 낙원의 대기 장소로 옮겨져 그곳에서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7년 혼인 잔치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5. 영의 지식을 배우는 낙원의 대기 장소

낙원의 대기 장소에서는 무엇을 하며 지낼까요?

영의 세계는 막연한 곳이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곳입니다. 그곳에서 기다리는 영혼들은 선지자들로부터 영의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천국에 대해, 또 영계의 법칙들에 대해서 배우지요. 이런 지식은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이 무한합니다.

혹 어떤 분들은 “그러면 천국에서도 공부해야 하나, 나는 공부하는 것이 싫은데.”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의 지식을 배우기는 전혀 어렵지도,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신기하고 오묘해서 배울수록 은혜롭고 마음이 충만해지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영의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그만큼 마음이 깨끗하고

온유해야 하지요. 영의 세계의 지식을 배우고 터득하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 깊은 영의 일들을 깨우치기도 합니다. 영의 세계의 법칙을 터득함으로써 영에 속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요.

예를 들면, 불황 속에서도 사업이 오히려 번창합니다. 질병과 사고가 많은 세상에서도 온 가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킴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힘들다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지요.

이처럼 이 땅에서도 영의 지식을 깨우쳐 알면 충만하고 행복합니다. 하물며 천국에서 깊은 영의 지식을 배울 때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우칠 때마다 감동이 밀려오고, 육의 한계로 인해 가졌던 의문들이 풀리니 마음이 시원하지요.

6. 사람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은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전하면 “인류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들을 다 수용할 만한 공간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만 생각해 보아도 이에 대한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는 은하계 전체에 비하면 한 개의 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은하계 역시 우주 전체에 비할 때는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하지요.

하나님께서 육의 세계에 베풀어 놓으신 우주조차도 사람의 머리로는 그 한계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영의 세계인 천국은 어떠하겠습니까?

낙원만 해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은 공간입니다. 낙원도 1천층에 가까운 곳과 가장자리는 까마득하게 멀리 떨어져 있지요. 그러니 ‘천국의 대기 장소가 비좁지는 않을까?’ 염려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부는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 영혼들이 대기하는 대기 장소의 역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영혼들이 대기하는 장소는 신약시대에 와서 달라져 음부가 아닌 천국 낙원으로 바뀌었지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나 주님에 대해 전혀 듣거나 알 기회가 없이 죽은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에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십니다. 결국 공의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두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도 기도하시며 들으신 말씀을 능력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세계를 알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운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서 새 예루살렘에 더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목 : 욥기강해 (34)

본 문 : 욥기 14:17-22, 15:1-3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욥의 말과 엘리바스의 변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다고 오해하는 욥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욥 14:17)

사람은 귀하고 소중한 것을 분실하지 않기 위해 주머니에 넣어 잘 봉합니다.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악을 봉하고 싸맨다는 것은, 그것을 가볍게 보지 않고 중대하게 보며, 단단히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걸음을 일일이 세는 것조차도 부족하여, 허물과 죄악을 봉하고 싸매서 도가 넘치게 중죄인처럼 다스리신다는 것이지요.

마치 사랑이 변해버린 남편에게 슬픈 고백을 하는 아내처럼, 욥은 하나님을 향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저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았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기 시작하시더니 나의 모든 것을 거둬가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미워하여 중죄인 취급을 하시는 것은 저의 어린 시절의 죄를 하나하나 들춰내시는 까닭이지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표현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사 54:5) 말씀했고, 특히 아가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욥을 지극히 사랑하는 신랑이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고자 연단을 허락하신 것인데, 욥은 나쁜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2. 사람의 소망을 끊어 버리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욥

“무너지는 산은 정녕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욥 14:18-19)

전에는 욥이 큰 산과 같은 명예가 있었고 부유했으며 권세도 있었습니다. 몸도 바위처럼 건강하고 자녀들도 많았으며, 못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웅장한 산과 바위를 무너뜨려 버리시니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냇물이 수십 년, 수백 년 흐르다 보면 이 물살에 돌들이 깎이고 닳아서 크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또 작은 물방울 하나는 힘이 없지만 오랜 세월 끊임없이 떨어진다 보면 단단한 바위도 구멍이 나게 되지요.

그런데 욕은 조금씩 흐르는 물도 크고 단단한 돌을 닳게 할 수 있다고 한 후에, 왜 넘치는 물이 작은 티끌을 씻어 버린다고 표현한 것일까요?

여기서 넘치는 물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나타냅니다. 욕은 넘치는 물처럼 엄청난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티끌만도 못한 자신을 짓밟고 쓸어버렸다고 비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은 하나님이 사람의 소망을 끊어 버리시는 분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며,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민 6:24-26, 애 3:33, 렘 29:11).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혼이 잘됨으로 더 큰 축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3. 과거에 집착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욕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욕 14:20-21)

욕은 엄청난 권세자인 하나님이 티끌만도 못한 인생인 자기를 끝까지 추격하시며 이기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거둬 가셨으며 건강도, 가정의 화평도 떠나게 하셨고, 결국은 욕의 생명까지도 이 세상을 떠나게 하여 음부로 보내려고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욕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간청도 해보고, 나중에는 원망, 탄식을 넘어 나쁜 하나님이라 매도하는 등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 이제는 입술을 제어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마구 쏟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한다’는 것은 그동안 욕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식으로 붉으락푸르락하는 등 얼굴빛이 변해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욕이 과거에는 부유하였고 존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지냈지요. 그러나 과거에 아무리 행복했을까라도 하나님이 다 거두어가 버리셨으니 기억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감사하지도 않고 은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욕은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자기가 비천한 자리에 있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욕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천해진 상황에서도 얼마나 친구들을 무시하였습니까?

“친구들아, 나는 의인이며 너희보다 월등히 지식과 지혜가 많으니 내 앞에서는 말도 꺼내지 말라” 했고, 하나님 앞에도 교만한 말로 따졌지요. 욥은 지금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 자기의 비천함을 깨달아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본래 존귀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이 모양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지, 왜 내가 비천하냐”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깨우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 3:6) 말씀한 대로 범사에 진리로 조명하여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질병 문제 등 어려움이 있다면 분명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런 질병에 걸렸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여 돌이키는 것이 축복이지요. 그렇지 않고 욥과 같이 축복을 누렸던 과거에 집착하거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매사를 남의 탓으로만 돌린다면 문제 해결도, 아무런 발전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이다”(욥 14:22)

욥이 앞에서는 과거를 돌아보며 말하였는데 이제는 현실로 돌아가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현실은 내 살이 썩어가고 있으며 고통스럽고 마음이 곤고하며 슬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지금의 괴로움도 하나님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탓이 아닌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기에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 나간다면 어떤 비바람도, 범람하는 물도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마 7:24-25).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탓, 다른 사람 탓, 환경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4. 변론의 무익함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유조치 아니한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욥 15:1-3)

욥의 친구들은 전에는 욥이 지혜로운 줄로 알았었는데, 지금은 가만히 욥의 말을 들어 보니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몰아가며 쉽 없이 원망 탄식의 말, 광풍 같은 말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 네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헛된 지식으로 대답할 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예 욥을 무시하며 미련한 자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변론이 이처럼 무익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욥이 친구들과 변론하지 않았다면 친구들이 이렇게 얽잡아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잠언 9:10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합니다. 만일 욥

이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했다면 친구들로부터 미련한 자라는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론 중에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떠난 말들이요,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미련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라고 했는데, 이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사람의 품에 안을 수 없다는 말이지요. 바로 욥의 말이 무익하고 헛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유초치 아니한 이야기란,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말을 뜻합니다. “욥아, 너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고 무익한 변론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미련한 자의 말이 아니냐” 이렇게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책망하는 자세가 옳은 것도 아닙니다. 엘리바스가 아무리 욥을 책망할지라도 지금은 소용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친구들 때문에 점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일어나 마음이 뒤틀린 상태에서는 아무리 옳은 말도 마음으로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말로 인해 더 화가 나고 감정이 폭발할 수 있지요.

따라서 친구들이 욥의 연단을 길게 만드는 장본인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친구들이 옆에 없었다면 욥은 변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조용히 묵상하며 회개거리를 찾았다면 이렇게 연단이 길어지지도 않았겠지요.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며 원수를 맺게 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잠 10:19). 아무리 좋은 소식이며 옳은 말이라 해도 변론은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가 받지 못할 때는 말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성도를 심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받는 사람에게는 주되, 오히려 그 말씀으로 시시비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에게는 주지 말아야 합니다(마 7:6). 이는 진리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예 전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한 지혜를 받아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 어려움을 만났다 해도 과거에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내가 문제를 만나고 힘든 일이 생겼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언제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어 드린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이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문제 앞에 낙심하고 믿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려움으로 인해 믿음이 성장하며 더 큰 축복을 받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과 구원받을 믿음과 구원받은 믿음

읽을 말씀 / 로마서 10:13~15

외울 말씀 / 로마서 12:3

참고 말씀 / 요한일서 2:12~14

교육 내용 / 예수님만이 구세주의 자격 조건에 합당한 분임을 깨달아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한다.

우리가 무조건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을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통회자복한 후 성령을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나와 통회자복하기 전까지 곧 성령 받기 전까지의 과정을 ‘구원받을 믿음’이라 하고, 죄를 통회자복하고 성령을 받은 상태를 ‘구원받은 믿음’이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려면, 단순히 교회만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을 믿음과 구원받은 믿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구원을 향해 가는 과정인 ‘구원받을 믿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두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편 강도가 예수님을 힐난하는 강도를 꾸짖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요.

즉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지요. 그에게 구원받아 낙원에 이를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주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간혹 ‘회개한 강도처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편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구원받을 믿음’이 있었기에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다른 편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할 때 그를 책망하며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것이라고 역설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편 강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미 마음에 인정하였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면서 “아버지여 저희

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향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한 편 강도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고 생명이 연장되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결코 이전처럼 흉악한 죄를 지으며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편 강도의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구원에 이를 것을 확증해 주셨지요.

그렇다면 구원에 이른 강도가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전에 갖고 있었던 ‘구원받을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이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온전히 들지 않지만, 열심히 구원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는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구원받을 믿음’에서 ‘구원받은 믿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지요. 곧 믿음을 갖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을 믿음에서 구원받은 믿음으로 바뀌려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 무엇이 죄인지 깨달아잡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려고 간절히 찾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요.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마음 중심에서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 때문이라고 믿으니 “나는 죄인 중의 죄인이었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복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주시지요.

이처럼 통회자복을 하기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있는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성령이 임하시고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짐을 내려놓으니 몸과 마음이 날아갈 듯 가볍고 기쁨이 샘솟지요. 비로소 ‘구원받은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2. 구원의 확신이 있는 ‘구원받은 믿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그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은 것

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원수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시험 환난과 고통 속에 의지할 곳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 소망 가운데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지요.

이처럼 성령 받은 후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을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해 통회자복을 하기 전까지의 믿음이라면, 구원받은 믿음은 통회자복한 후에 성령 받아 하나님 말씀을 행해 나가는 믿음이지요. 즉 구원받은 믿음과 구원받은 믿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믿음'이 주어지면 세상을 좇아 살아왔던 잘못된 구습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여 마음 중심에서 우리나라와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은 즉시 술과 담배를 끊기도 하고 설교 말씀을 통해 배우는 대로 기쁨으로 순종해 나갑니다. 처음에는 겨자씨만 한 믿음에서 출발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 나가면서 어떤 비바람에도 꺾떡없는 나무처럼 큰 믿음으로 성장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아이, 청년의 과정을 거쳐 아버지가 되듯이 믿음도 점점 성장해 갑니다. 갓 태어난 자녀와 같이 믿음이 작다고 해도 성장 과정을 거치면 청년을 지나 아버지와 같은 큰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은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 받은 단계를 말합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면 아이들의 믿음이 되지요. 아이들의 믿음이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믿음입니다. 즉 부모에 대해 깊이까지는 모르고 일부분 조금 아는 단계이지요. 그러나 진리를 알고 체험하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있고 행치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면 청년의 믿음이 됩니다.

청년의 믿음이란, 완전히 성숙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믿음이 마음에 임해 있으므로 능히 원수 마귀 사단의 꾀계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천국에 소망을 두며,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을 힘이 있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며 시험을 거뜨하게 이겨냅니다.

청년의 믿음이 자라면 아버지의 믿음이 됩니다. 이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믿음' 곧 근본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이의 믿음에서 아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자녀를 낳아 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하듯이, 아버지의 믿음이 되어야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것, 근본까지도 알 수 있지요.

아버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본이 되고 겸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포용하며, 좌우로 치우치거나 흔들림이 없이 진리 안에 온전히 서게 됩니다. 덕과 사랑을 갖추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숙한 믿음이기에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평가 및 적용하기

1. 구원받을 믿음과 구원받은 믿음을 구분하여 설명해 보세요.

구원받을 믿음:

구원받은 믿음:

2.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자녀들의 믿음(믿음의 1단계) : 성령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다.

② 아이들의 믿음(믿음의 2단계) :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이다.

③ 청년들의 믿음(믿음의 3단계) :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다.

④ 아버지의 믿음(믿음의 반석 이상)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 금주 과제

〈지난주 설교 요약, 구역공과〉 읽고 복습하기.

● 알고 넘어갑시다!

◆ 낙원

간신히 구원받은 믿음을 지닌 영혼들이 들어가는 처소이다.

하나님 보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하나님 영광의 빛이 약하며 천국의 처소 중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한다.

낙원의 가장자리는 백보좌 대심판 때까지 천국의 대기 장소로 활용된다.

온 영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들을 제외하고

창세 이래 구원받은 무수한 영혼이 낙원의 가장자리에 머물고 있다.

이재록 목사 저서 인터넷 구입 안내

◆ 생명력 넘치는 이재록 목사의 저서를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 1544-1900)

● 영풍문고 (www.ypbooks.co.kr ☎ 1544-9020)

● 예스24 (www.yes24.com ☎ 1544-3800)

● 인터파크 (book.interpark.com ☎ 1577-2555)

● 우림북 (www.urimbooks.com ☎ 02-818-7241)

교구 편성표

본 교회는 지역별로 교구를 형성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남장년, 금요일 여장년 구역예배가 있습니다

총괄대교구장: 이수진

1대대교구장: 이미경

대 교 구 장: 조혁희

1교구장	최성숙	구로구(가리봉동134-130번지)
2교구장	권영남	구로구(가리봉동 00-133번지, 구로3동 125-252번지, 구로3동 1123-125, 1274번지)
3교구장	장정미	구로구(가리봉2동, 구로본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3동 256, 773-851, 1271, 1278-1279번지, 구로4동, 구로5동, 신도림동)
4교구장	최영신	구로구(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천왕동, 향동, 은수동, 궁동)
5교구장	이석규	영등포구
6교구장	류순주	양천구, 강서구, 김포시

2대대교구장: 조대희

대 교 구 장: 조수열

7교구장	이성숙	금천구(가산동)
8교구장	김영순	금천구(독산동, 시흥동)
9교구장	최영자	광명시(철산동, 광명동, 노온사동, 옥길동)
10교구장	김영석	광명시(하인동, 소하동, 가학동, 일직동, 학은동)
11교구장	조은영	동작구(삼도동, 사당동, 동작동, 흑석동, 대방동, 노량진동)
12교구장	임학영	동작구(신대방1동, 신대방2동)
13교구장	정진영	관악구
14교구장	서덕분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3대대교구장: 이미영

대 교 구 장:

15교구장	문신현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16교구장	박금미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17교구장	차경숙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18교구장	황미경	안산시, 시흥시
19교구장	박광현	부천시
20교구장	노영진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21교구장	이풍근	인천시

중국대교구장: 황금란

중국1교구장	정규원	중국동포 구로구
중국2교구장	오인숙	중국동포 서울시(구로구 제외), 경기도
중국3교구장	윤영자	중국인
해외교구장	문신현	국내거주 외국인 성도

부설 기관

만민기도원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이 난치, 불치병 등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갖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있습니다.

원 장/ 이복님
문의전화/ 02-818-7102

알려드리는 말씀

본 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교회 소식

- 당회장님의 저서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 헝가리아어와 「권능」 리투아니아어가 전자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당회장님 신앙칼럼이 「기독교신문」, 「시사뉴스」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 만민뉴스 말레이시아어(18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만민뉴스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 만민뉴스 985호, 986호가 디지털 신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만민뉴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기사의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이나 음성으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제31회 연합성결신학교 및 제16회 MIS(만민국제신학교) 졸업식이 2월 16일(목) 오후 2시 3층 성전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설교: 연합성결신학교 교장 문신현 목사
※ 연합성결신학교 졸업생: 성기용, 김진희, 송실라
※ MIS(만민국제신학교) 졸업생: 아이미르 첼치가셰프(러시아), 막심 추바츠크(몰도바), 티그란 카차트리안(아르메니아)
※ 2023학년도 성서학과 신입생을 2월 13일(월)~2월 25(토)까지 모집합니다.
문의: 신학교 ☎ 02) 822-5237
- 당회장님 저서를(주보 맨 뒷장 참고)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e-book)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구 소식

여조장 월례회/ 2월 13일(월) 오후 1시 사택예배실(설교: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
중국대교구 일꾼 월례회/ 2월 12일(주일) 저녁예배 후 3층 성전(설교: 황금란 대교구장)

• 감사드립니다.

강단헌화/ 해외 지교회 성도(꽃꽂이 봉사: 예배국 꽃꽂이부, 시설관리국)

— << 교구별 현장예배 장소 >> —

일 정		3층 성전	사택 예배실
2월 12일	대예배	7~10 교구	1대대교구
	저녁예배	중국대교구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2월 19일	대예배	중국대교구	7~10 교구
	저녁예배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1대대교구
2월 26일	대예배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중국대교구
	저녁예배	1대대교구	7~10 교구
3월 5일	대예배	1대대교구	11~13, 17, 19, 빛과소금선교회
	저녁예배	7~10 교구	중국대교구

지성전	주 소	담당/연락처
강 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검 단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구 리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차경숙 전도사 010-2290-1856
부 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북 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72 남송빌딩	문신현 목사 010-7736-9333
분 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세신빌딩 401호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수 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노영진 목사 010-3330-3172
안 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황미경 전도사 010-9636-7977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이 천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서덕분 전도사 010-2201-0542
인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이풍근 목사 010-5611-7254
일 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 B/D 4층	박금미 전도사 010-4710-9649

GCN,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주요 프로그램 안내

2/12 일

- 00:00 - '2차 영혼육 3' 이재록 목사
- 05:00 - '욥기 강해 29' 이수진 목사
- 17:00 - '창세기 강해 51' 이재록 목사
- 18:30 - '천국의 모형과 그림자' 김상휘 목사

2/13 월

- 01:00 -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수진 목사
- 07:05 - '창세기 강해 52' 이재록 목사
- 08:00 - '요한계시록 강해 31' 이재록 목사
- 13:00 - '젖과 꿀이 흐르는 땅 3' 이수진 목사
- 15:30 - '공부 잘하는 비결 2' 이재록 목사
- 19:00 - '우리 삶의 등불 89' 이재록 목사

2/14 화

- 01:00 -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수진 목사
- 08:00 - '요한계시록 강해 32' 이재록 목사
- 10:20 - '십자가의 도 4' 이재록 목사
- 12:05 - '천국 5' 이재록 목사
- 14:00 - '2차 영혼육 4' 이재록 목사
- 17:00 - '창세기 강해 53' 이재록 목사
- 18:00 - '욥기 강해 30' 이수진 목사
- 19:00 - 구역 공과 34

2/15 수

- 00:00 - '2차 영혼육 6' 이재록 목사
- 01:00 - '지옥 2' 이재록 목사(영상설교)
- 05:00 - '요한계시록 강해 63' 이재록 목사(영상설교)
- 10:20 - '십자가의 도 5' 이재록 목사
- 13:00 - '죽은 자를 위한 세례 1' 이재록 목사
- 15:30 - '공부 잘하는 비결 4' 이재록 목사
- 17:00 - '창세기 강해 54' 이재록 목사
- 18:00 - '우리 삶의 등불 77' 이재록 목사

2/16 목

- 01:00 - '욥기 강해 34' 이수진 목사
- 07:05 - '창세기 강해 55' 이재록 목사
- 08:00 - '요한계시록 강해 35, 36' 이재록 목사
- 10:20 - '십자가의 도 6' 이재록 목사
- 12:05 - '천국 7' 이재록 목사
- 13:00 - '죽은 자를 위한 세례 2' 이재록 목사
- 15:30 - '공부 잘하는 비결 5' 이재록 목사
- 19:20 - '욥기 강해 11' 이수진 목사

2/17 금

- 08:00 - '요한계시록 강해 37' 이재록 목사
- 13:00 - '헛되고 헛되니 1' 이재록 목사
- 14:00 - '2차 영혼육 7' 이재록 목사
- 17:00 - '창세기 강해 56' 이재록 목사
- 19:00 - 천지창조의 섭리 30
- 20:40 - 패루 연합대성회 1

2/18 토

- 07:05 - '창세기 강해 57' 이재록 목사
- 10:00 - '그리스도의 향기' 이재록 목사
- 12:05 - '천국 9' 이재록 목사
- 19:40 - '우리 삶의 등불 71' 이재록 목사

※ 이 편성표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02-824-7107, 1577-2073 / webmaster@gcntv.org

※ KT GENIE TV 882번 및 유튜브 GCN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 서비스 안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전화로 듣고
환자를 위한 기도를 전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02) 830-5320

-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_ 10분
- 운전을 위한 기도_ 20분
- 3분 설교_ 30분
- 환자 기도_ 40분, 41번(영어), 42번(불어), 43번(중국어)
- 찬양_ 50, 60분
- 하루를 마치는 기도_ 70분

인터넷 예배 안내

예배실황이 인터넷 및 인터넷TV를 통해서
전국 및 전 세계로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 다국어 방송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 생중계 시간 주일 대예배_ 오전 11시 30분
주일 저녁예배_ 오후 3시/ 수요예배_ 오후 7시
금요일예배_ 오후 11시
다일예배_ 매일 오후 9시
- ▶ 기타 녹화 방송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 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 GCN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 GCN방송 모바일 홈페이지

www.manmin.org
m.manmin.org
www.gcntv.org
m.gcntv.org

- Feb. 12(Sun.)

(Jeremiah 5:25) Your iniquities have turned these away, And your sins have withheld good from you.

- Feb. 13(Mon.)

(1 John 5:3) For this is the love of God, that we keep His commandments; and His commandments are not burdensome.

- Feb. 14(Tue.)

(1 John 3:21) Beloved, if our heart does not condemn us, we have confidence before God;

- Feb. 15(Wed.)

(1 John 3:22) And whatever we ask we receive from Him, because we keep His commandments and do the things that are pleasing in His sight.

- Feb. 16(Thu.)

(2 Timothy 3:1) But realize this, that in the last days difficult times will come.

- Feb. 17(Fri.)

(2 Timothy 3:2) For men will be lovers of self, lovers of money, boastful, arrogant, revilers, disobedient to parents, ungrateful, unholy

- Feb. 18(Sat.)

(2 Timothy 3:3) Unloving, irreconcilable, malicious gossips, without self-control, brutal, haters of good

금주의 성경구절

2월 12일(주일)

(렘 5:25)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2월 13일(월)

(요일 5: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2월 14일(화)

(요일 3:21)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월 15일(수)

(요일 3:22)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월 16일(목)

(딤후 3:1)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2월 17일(금)

(딤후 3:2)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횡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2월 18일(토)

(딤후 3:3)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전 세계 영혼을 깨우는

이재록 목사 저서 안내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맞으며/ 이재록 목사 간증 수기
멈추지 않는다

나의 삶 나의 신앙 ①, ②/ 이재록 목사 자서전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 (상·하)

지옥

영혼유 (상·하)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주님의 자취 (상·하)/ 요한복음강해

고린도전서강해 (상·하)

하나님의 씨/ 요한일서강해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상·하)/ 음기강해

고백/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100편

눈물/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정복사

일곱 교회/ 이상적인 교회 지침서

깨어라 이스라엘/ 마지막 때 이스라엘 예언서

신앙인의 기본

지혜/ 자기개발서

공부 잘하는 비결/ 자기 주도 학습법

성경과 권능 시리즈

(2주년속 특별 부흥성회 설교집)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입문편 1

내가 사행하리니/ 입문편 2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입문편 3

와 보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실천편 1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니/ 실천편 2

권능/ 실천편 3

근본의 소리를 발하라/ 실천편 4

육과 영/ 핵심편 1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핵심편 2

하나님은 빛이시라/ 핵심편 3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핵심편 4

네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의 벼 아브라함/ 성경 인물 시리즈 1

나의 택한 아픔이 나의 벼 아브라함의 자손아/ 성경 인물 시리즈 2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성경 인물 시리즈 3

엘리아를 나뉘게 보내리니/ 성경 인물 시리즈 4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주제성경 모음 1 믿음편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_ 2_ 응답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은/ _ 3_ 예배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_ 4_ 기도편

치료하는 여호와/ _ 5_ 치료편

하나님의 법도/ _ 6_ 심계경편

참된 복을 좇는 자/ _ 7_ 팔복편

거역된 삶과 순종의 삶/ _ 8_ 열재앙편

기이한 일

희한한 능

등불/ 칼럼 모음

지혜의 샘/ 잠언칼럼 모음

생명의 샘/ 베네딕도 칼럼 모음

만화로 보는 지혜의 샘 (상·하)/

사명과 헌신/ 헌신예배 설교 모음 1

말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 _ 2

영원한 것을 위하여/ 방송설교집 1

겉옷을 내어 버리라/ _ 2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_ 3

옛새 동안의 만나 (상·하)/ 설교자료, 구역공과

감추었던 만나 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들/ 성도 신앙 간증집

주 예수를 믿으라/ _ 2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_ 3

하나님은...!

2월 추천도서

천국



정가 / 7,000원

수정값이 값고 아름다운 천국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천국에서 살아갈까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
천국은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운
가장 좋은 천국, 세에루실렘성
이곳에서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http://www.urimbooks.com>, <https://www.facebook.com/urbooks17>
<http://urimbooks.blogspot.com>

URIM BOOKS

내 삶의 등불/ 독후감 수상집
갈릴리여 꽃보다 붉은 사랑이여/ 성자순례 회보집
학습 세례 문답서

한디북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장

참된 복을 좇는 자/ 팔복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십자가의 도

믿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천국 (상)

이동용(주니어 Bible Study)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 심계경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①, ②

참된 복을 좇는 어린이 ①, ②

십자가의 도 ①, ②

신서

공부 잘하는 비결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기도

출발! 아름다운 천국여행

7일간의 설리

하나님의 벼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학생용(청소년 Bible Study)

젓과 꿀이 흐르는 땅 ①, ②

선

믿음의 분량

지혜와 명철

공부 잘하는 비결

주님의 자취 ①, ②

사람이 다스려야 하는 몸의 행실

십자가의 도 ①, ②

만나Time

하나님의 벼 아브라함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유아 유치용(키즈 Bible Study)

공부야, 놀자!

나는 예수님 닮은 기도대장!

선

-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구입
- 전자책 구입: 국내 주요 서점 리디북스, 아마존닷컴(amazon.com), Google Play, iBookstore
- 아마존닷컴(amazon.com)에서 종이책 구입 가능

홈페이지 www.urimbooks.com, 블로그 blog.naver.com/urbooks, 페이스북 [facebook.com/urbooks17](https://www.facebook.com/urbooks17)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23)

정기 예배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1부 대예배	오전 10:00	각 성전
주일 2부 대예배	오전 11:30	각 성전
주일 저녁 예배	오후 3:00	각 성전
빛과소금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9:00	각 성전, 북부·강동지성전
빛과소금 요식업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11:00	각 성전
금요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1:00	각 성전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00	각 성전
새벽예배	매 일 오전 5:00	각 성전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화요일 오후 8:30	각 성전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수요일 오후 9:00	각 성전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토요일 오후 4:00	각 성전
아동주일학교(주일예배)	대예배/ 오전 11:40 저녁예배/ 오후 1:30	

※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예배시간 및 관련 문의 : 만민중앙교회 기획실 ☎ 02-818-7236